

제 5 강 독일관념론 철학 : 칸트

※ 칸트(Immanuel Kant, 1724-1804, 독일)

◆칸트의 구성주의 철학◆

△ 선천적 종합 판단의 가능성



*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의 결합

- 흄의 경험론이 회의론으로,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독단론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
- 감각적 경험(인식의 원천적 소재)+본유관념(인식의 원천적 형식)
⇒ **선천적인 종합판단**(das a priori synthetische Urteil)인 인식 가능.

* 선천적 종합판단의 개념

- 형식적(분석적) 판단 : 술어 개념의 내용이 고스란히 주어 개념의 내용에 들어 있는 판단.
- 종합적 판단 : 지식이 확장될 수 있으나 보편타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판단.
⇒ 분석적 판단의 보편타당성과 종합적 판단의 지식의 확장성을 결합한 판단. 즉, **보편타당하면서 실재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는 판단.**

※ 칸트의 의문 : 어떻게 해서 선천적 종합판단이 가능한가?

◆칸트의 구성주의 철학◆

△ 현상계와 예지계 그리고 이율배반



* 현상계(Phenomena)

- 경험 가능한 영역으로 나타나는 영역.
- 현상계는 곧 자연이다. (과학의 세계.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세계.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세계.)

* 예지계(Noumena)

- 현상계를 넘어 있는 영역.
- 사물 자체의 세계. (참, 거짓의 판단이 불가능한 세계.)

※ **순수이성** :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 사유하는 능력. 감성과는 상관없는 영역으로 **신, 우주, 영혼(⇒이념(Idee))** 등의 영역을 말한다. 이들 세계는 참, 거짓의 구분을 벗어나 있다.

* 이율배반(Antinomie)

- 서로 모순, 대립되는 명제. 즉, 하나가 참이면 반드시 다른 것이 거짓이고, 하나가 거짓이면 반드시 다른 것이 참인 관계를 지닌 명제들 모두가 참인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태.
(≠모순 : 하나가 참이면 반드시 다른 하나는 거짓인 것)

<참고자료>

① 순수 이성의 첫 번째 이율배반

정립) 세계는 시간적으로 시초를 갖는다.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도 한계를 갖는다.

반정립) 세계는 시초를 갖지 않는다. 그리고 공간에서도 한계를 갖지 않는다. 시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세계는 공간적인 것으로서 무한하다.

② 순수 이성의 두 번째 이율배반

정립) 세계의 모든 복합적인 실체는 단순한 부분들로부터 성립된다.
단순한 것 또는 그것으로부터 합성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
현존하지 않는다.

반정립) 세계의 그 어떤 복합적인 사물도 단순한 부분들로부터
성립하지 않는다. 도대체 단순한 것 자체들은 현존하지 않는다.

③ 순수 이성의 세 번째 이율배반

정립) 자연의 법칙에 따른 인과성은 세계의 현출들이 총체적으로
도출되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. 세계 자체를 해명하는
데에 자유를 통한 인과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연적이다.

반정립) 자유는 없다. 세계 속의 모든 일들은 단적으로 자연의
법칙들에 따라 생겨난다.

④ 순수 이성의 네 번째 이율배반

정립) 세계에는 세계의 부분이거나 세계의 원인으로서 단적으로
필연적인 존재가 속해 있다.

반정립) 세계 내에서도 세계 밖에서도 도대체 세계의 원인인
단적으로 필연적으로 존재는 없다.

△ 칸트의 도덕론

★ **정언명법**으로서의 도덕법칙을 제시

- 이성 : 이론이성과 실천이성

- **실천이성** : 실천적 원칙에 의해 의지를 규정하는 것. 실천적
원칙은 격률(Maxim)과 명법(Imperativ)으로 나뉜.

- **격률** :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나름대로
정한 행위의 준칙. 주관적으로만 타당. (개인의 삶의 철학)

- **명법** :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닌 실천적 원칙. **가언명법과**
정언명법이 있다.

⇒ 오로지 정언 명법에 의해서만 도덕성을 확립할 수 있다. (의지의
내용이나 의지에 의해 행동한 결과의 내용에 의해 도덕성 여부 즉,
선악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을 거부)

⇒ **“너의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
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 하라.”**

★ 인간은 **자율적인 자기 입법자**

- 각 **개인의 의지의 자유**를 강조. ‘스스로 자기가 지킬 율법을
만든다.’

- 충분히 자율적이긴 하되, 그 자율성에는 **정언명법의 도덕적
원칙을 부정할 수 없는 양심**이 있다.

- **“저 하늘에는 별들이 있고, 여기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.”** →
자율적인 개인을 내세우되 결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지
않는 숭고한 인간상을 마련. ‘근대 계몽주의의 완성자’

★ 스토아학파의 영향

- **자유**의지를 강조했던 아우구스티누스

- 일체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난 데서 행복을 찾으려 한 스토아학파와

일체의 감정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난 도덕을 설파한 칸트.

⇒ 행복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는 결코 도덕적이지 않다. (도덕과 감정의 분리)